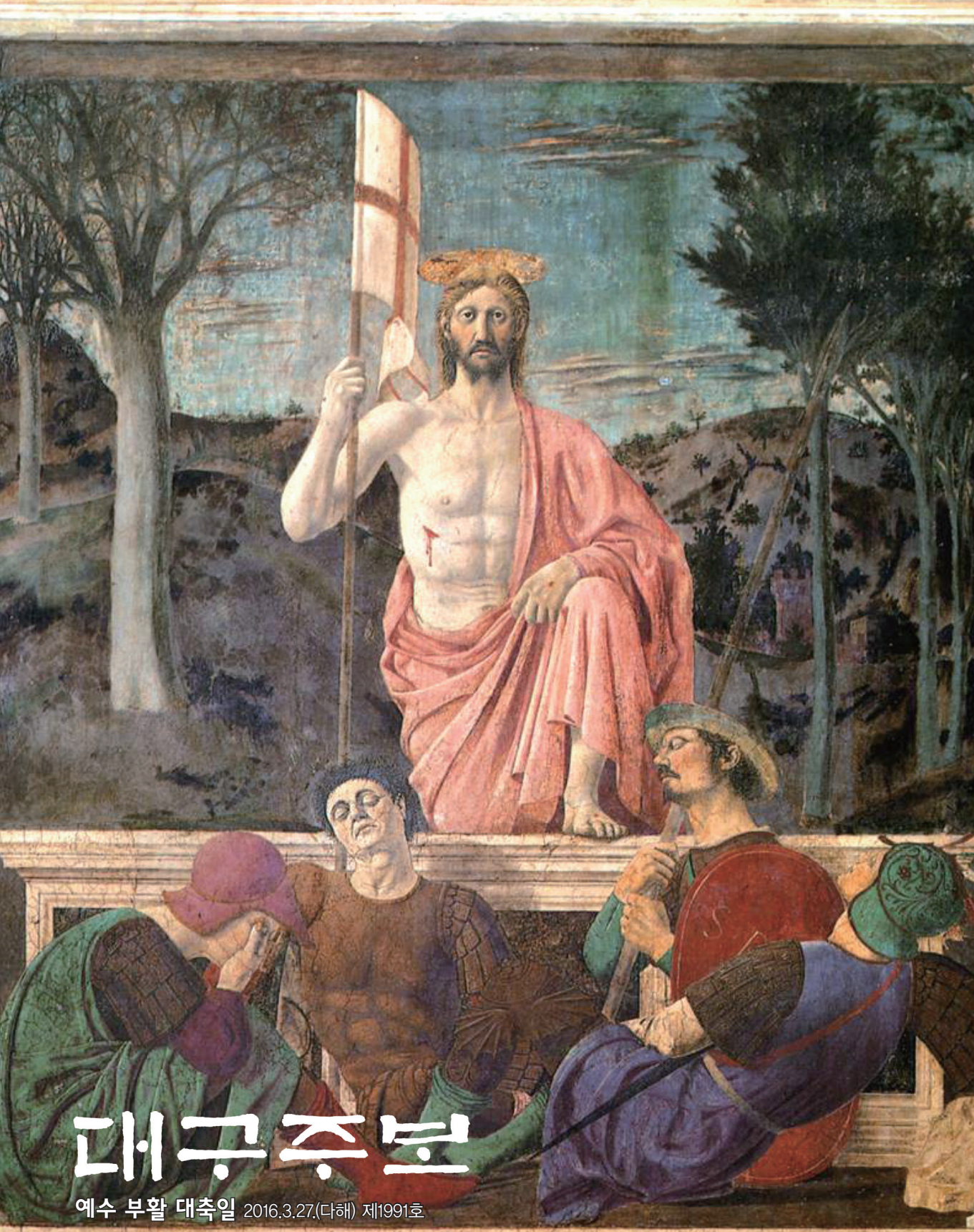




대구주보

예수 부활 대축일 2016.3.27.(다해) 제1991호



가정을 통해 전해지는 부활의 기쁨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모든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리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제1독서)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보증되었고,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라고 하시며 토마스의 믿음을 꾸짖으셨지만 사실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을 막은 돌이 치워져 있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다른 데 모셔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이어 달려간 시몬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요한 20,9)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데에 있지, 빈 무덤이나 잘 개켜져 있는 수건 같이 어떤 단서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않으시는 한,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른 제자”(우리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해 준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요한은 빈 무덤과 개켜져 있던 수건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과 사랑은 새로운 삶을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구,



공동의 집이 생태적 위기에 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로 사람들은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너무 쉽게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흉악한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빈곤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죽음의 세력이 전 세계에서 판을 치고 있고 그 세력은 가정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 사건은 온 세상 사람이 알아들을 만큼 확실하고 거창하게 전해지지 않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조용히 알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죽음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사목교서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기초는 가정이며, 복음화는 바로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먼저 새로운 삶,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사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저 위에 있는 것, 천상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욕 같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관심과 배려 같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한 이들의 이러한 삶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눌 때,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가장 작은 배려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려 주신 크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삶으로 증언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16년 3월 27일 예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 조 환 길 타대오

참된 내가 되기 위해

마석진 프란치스코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제가 되어 대구에서 두 개 본당 보좌 생활을 하고,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교구로 파견되면서 사실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과연 사제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나 걱정이 아니라 말이나 문화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를 지금의 제 자신으로 만든 사건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 프란치스코라는 공소(지금은 본당이 되었습니다.)에 복사단 여자 아이 하나가 제게 뭐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겨우 공부를 마치고 본당에서 일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때인지라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다시 한 번 말해 줄래?” 여러 번 다시 묻고 그 아이도 다시 말을 했지만 여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한 번만, 더” “padre, no entiende nada.” 번역하면 “신부님, 아무것도 이해 못하네.” 하필 이 말이 어찌나 귀에 잘 들리던지,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실 화가 치밀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무시당한 자존감,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 등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날 밤은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것일까?’ 결국 이유는 그 아이의 말이 아니라, 제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어린 아이의 말에 ‘내가 어른이고, 신부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쓸데없는 교만을 마주하며 많은 반성들을 했었습니다. 신자 분들이 사제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시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내가 신부니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때 그 아이가 고마웠고, 하느님께 감사드렸으며 비로소 제가 참된 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무슨 큰 위치에 있는 마냥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무시당한 것 같으면 감히 내가 누군데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드러내셨고,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당신의 삶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인데, 어디 감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참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을 통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문**

그리스도의 상징, 부활초

부활 시기가 시작되면 성당에는 평소에 보던 초와는 달리 크고 화려하게 장식된 부활초가 눈에 띕니다. 부활초는 부활 성야 때 특별한 예식과 함께 축성된 초로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이 부활초는 원래 벌집의 재료인 밀랍으로 만들어지는데 벌은 초대 교회 때부터 동정성을 지닌 피조물로 여겨져 동정 성모님에 비유됐고 밀랍은 동정 잉태의 결실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랍으로 이루어진 밀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활초가 만들어진 것은 4~8세기경으로 중세에 성지 행렬, 십자가 경배, 무덤 조배(朝排) 등 복잡한 성주간 전례와 함께 빛의 상징으로 부활 성야 전례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는 1955년 교황청의 전례개혁 때 부터입니다.

부활초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십자가 위쪽에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인 ‘알파’(Α)가, 십자가 아래쪽에는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Ω)가 씌어져 있고, 그 해의 연수(올해는 2016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요한 묵시록 1,8)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다섯 상처를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 끝부분과 중앙에는 다섯 개의 향 덩이가 꽂혀 있습니다.

부활 성야 전례의 빛의 예식과 함께 완성된 이 부활초에 사제가 축복된 새 불로 불을 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제단까지 행렬하는 동안 점화된 부활초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3번 외치게 되는데 신자들은 이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하고 부활초로부터 불을 건네받아 각자가 준비한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불기둥의 인도를 받은(탈출 13,21-22 참조)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제는 복음 낭독 후 부활초를 물에 담그면서 성세수를 축성합니다. 부활초는 모든 전례에서 제일 먼저 켜고 맨 나중에 끕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가 끝나는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 독서대 옆에 마련된 촛대에 세워져 전례를 행할 때 마다 불을 밝힙니다. **▶▶▶**

부활 성야

- ▲ 제1독서 [창세 1,1-2,2]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 ▲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 제2독서 [창세 22,1-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 ▲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 제3독서 [탈출 14,15-15,1-1]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갔다.〉
- ▲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 제4독서 [이사 54,5-14]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없이 여기신다.〉
- ▲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 제5독서 [이사 55,1-11]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 ▲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제6독서 [바룩 3,9-15,32-4,4]
〈주님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 ▲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제7독서 [에제 36,16-17-18-28]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 ▲ 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 복음 [루카 24,1-12]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 ▲ 영성체송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예수 부활 대축일

- ▲ 입당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 제1독서 [사도 10,34-11,37-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제2독서 [콜로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께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복음 [요한 20,1-9]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이주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4월 2일(토) 11:00 대안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4월 2일(토) 11:00 성모당
오순절평화의마를 후원회미사	3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	-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4.3(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한국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해외선교사제를 지향한다면

한국의외방선교회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4.19(화)~20(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아씨시 수녀원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4.2(토)~3(일) 1박 2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2만 원

주최: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교육 | 모집 | 기타

빛떼제기도

일시: 4.9(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폐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 (010)3817-5255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3.29~6.21(매주 화) 9:30~17:30

자격: 전문대 이상 졸업자

문의: 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자: 4.17(일), 천진암성지

신청: 3.30(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4.23(토)~5.5(목) 12박 13일

장소: 이태리, 크로아티아, 메주고리에

경비: 내측 518만 원~발코니 568만 원

문의: (02)2281-9070

<http://www.cttour.org>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제11회 IVYCAMP

기간: 7.24(일)~8.18(목) 25박 26일

내용: 미국 영어 연수 IVY리그 대학 탐방

대상: 초등4~고등1 (총 46명)

참가비: 700만 원(일체비용 포함)

문의: 구립서초유스센터, (02)3486-0738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우리아이 아플땐?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학박사



평 일 09:00~19:00, 토 일 09:00~18:00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동아주치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발리)
<http://www.ksnose.com>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골동품 · 민속품
고가 매입, 문의 환영
문승갤러리 김 대 운 (요셉)
위치 : 건들바위 네거리(무료감정)
☎ 053)474-3050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통족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치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영양치료실/화상, 흉터크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크리닉
2F 오프토피스킨케어/여드름크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7호광장 듀윙 2번출구 ☎ 566-4333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R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월 29일 (화)은
(故) 전달출(토마스데아퀴노) 신부
선종 6주기입니다.

4월 2일 (토)은
(故) 서영민(알렉산텔) 신부
선종 2주기입니다.

4월 2일 (토)은
(故) 황주철(로제리오) 신부
선종 3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제5회 교구장기 게이트볼 대회

일시: 5.10일(화) 9:00 개회식
장소: 대구 성서 실내게이트볼구장
마감: 4.12(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제2회 5대리구 가톨릭배드민턴대회

일자: 4.10(일), 구미 봉곡중학교
대상: 천주교 신자만 신청 가능
경기 내용: 남복, 여복 / 팀당 3만 원

마감: 4.3(일) / 문의: (010)9224-7718
*1인 신청시 파트너를 맞추어 드립니다

갤러리 빛과색_색유리와 그림 작품전

고산본당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원동수 신부 상설 전시관전
기간: 4.8(금)~18(월) 14:00~17:00
장소: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신광공소)
문의: 고산성당, 795-2261

바뇌성모기도회 월미사

가난한 이, 고통받는 이, 기도하지 않은
가정에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3.31(목) 14:00
장소: 삼덕성당

가톨릭미용인회 모임

일시: 3.28(월) 20:00
장소: 교구청 가정사목담당(대건관 2층)
대상: 가톨릭신자 미용인 모든 분
문의: (010)6560-3086

교육 | 모집

공의회학교 심화과정 개설

기간: 4.4~5.30(매주 월)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대상: 공의회학교 기초과정 수료자
마감: 3.31(목) / 회비: 10만 원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0차 ME주말: 4.22(금) 19:00~24(일)
쇄신8차: 4.2~3 ME주말체험부부대상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채용 | 안내

내당성당 사무장 · 사무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문의: 558-4411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하은영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교구청 휴무

교구청은 3월 28일(월) 쉽니다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파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 오전 11시 5분~12시 / 재방송 주일 오전 11시 5분~12시 (주파수: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4월 2일(토), 9일(토) 전영순 수녀(투스 포고 베네딕도수녀회)

4월 16일(토) 「임 따라, 사랑 따라」 특집 좌담프로그램 (최종희)

※ 4월 18일(월) 개국 20주년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성모발현성지순례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출발일: 2016년 8월 29일 (13박 14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일 레(유스티노) 홍 미 최(안젤라)

since 1999



감기줄임/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아토피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애니타워 4F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 기 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결혼명가 노블코리아

중신 잘하는 집!

미팅횟수 채용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 053)639-8998

박옥순(요한나) 영주(엘마)

동대구역 신세계 부띠끄시티II 드라마트 10층 14호



천연염색공방 툴라바이트

http://www.툴라바이트.com

·의류 ·침구류 ·소품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 명 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30번지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관절,신경,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를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 영 덕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운암역에서 도보 10분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